
프로수르: 이념적 통합인가 보복인가?

카를로스 오미나미

전 칠레 경제진흥재건부 장관 및 상원의원

원제와 출처: Carlos Ominami P., “Prosur: ¿integración o revancha ideológica?”,
Nueva Sociedad, No. 291, enero–febrero de 2021, pp. 157–168.

핵심어: 통합, 프로수르(남미발전포럼), 우나수르(남미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

프로수르(Foro para el Progreso de América del Sur(Prosur: 남미발전포럼)의 창설은 2019년 1월 14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하였다. 공식적인 창설은 같은 해 3월 22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소집한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그리고 볼리비아는 옵서버 국가, 우루과이는 단순 초청국으로 참여하였다. 니콜라스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제외되었다.

산티아고의 초기 선언에 따르면, 프로수르는 “민주주의, 권력 분립, 시장 경제,

사회적 의제(...)를 수호하기 위한 남아메리카의 공공정책 조율 메커니즘”으로 등장하였다. 프로수르의 창설을 위해 법치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정해졌다. 동 선언에 따르면, 프로수르는 인프라, 에너지, 보건, 국방, 치안 및 범죄 퇴치, 그리고 재해 관리의 6가지 특정 영역에 집중한다. 초대 의장인 칠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IDB)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통합연구소(INTAL)를 통해 분과별 의제와 기술적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략적 조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수르의 주요 발기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피네라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이었다. 칠레의 산티아고가 프로수르의 창설의 본거지가 되었고 피네라 대통령이 초대 의장으로, 다음으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2대 의장으로 추대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특히 피네라에게 프로수르는 국제적으로 자신을 남아메리카의 주요 리더로 알리기 위한 유용한 플랫폼이 되었다. 2019년은 피네라의 이러한 국제 영향력 확장을 위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었다. 한편, 칠레는 UN기후변화회의(COP25)와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례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 11월과 12월에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이 회동할 것이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진보적 리더십의 쇠퇴로 특징지어진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국제적 리더십을 부각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이전 몇 달 동안 피네라는 APEC 정상 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무역전쟁의 휴전에 서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단언해 왔다.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위치한 피네라의 사진은 칠레 대통령이 국제적 스타로 등극함을 보여줄 것이었다.

10월 9일 피네라는 여전히 “칠레는 곤경에 처한 라틴아메리카의 진정한 오아시스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인 10월 18일, 전례 없는 사회적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10월 25일 산티아고와 지역 수도들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며 절정에 이르렀는데, 칠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10월 30일 정부는 칠레가 APEC 및 COP25 정상회의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우선순위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요구들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회적 폭발은 국제 영향력 확장에 대한 피네라의 열망을 야박하게 꺾어버렸다. 모범적인 국가의 수반에서 사면초가인 대통령으로 변했고, 그에 대한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추락할 기세였다.¹⁾ 그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 정부는 이 상황을 이용해 뛰어난 관리 능력을 과시하며 시민들로부터 다시 점수를 따고자 했다. 대규모 병상 개조와 수백 대의 인공호흡기 구매를 통해 의료체제 붕괴를 막으려는 노력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검사, 동선 추적, 격리를 통한 병원 외부에서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대해 소홀하였다. 결국 “칠레는 전염병을 대처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발표들이 현실과 완전히 어긋났다. 2020년 5월 말 칠레는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10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

빈약한 결과

프로수르가 창설된 지 2년 가까이 흐른 2020년 12월 피네라가 콜롬비아에 의장직을 넘기면서 “2019–2020 업무 보고서”²⁾를 발표하였다. 도입부에는 “상당한 발전”과 “중요한 기여”에 대해 언급하였다. 팬데믹과 관련해서는 “이 위기의 다면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대응”과 “팬데믹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한” 네 차례의 비대면 정상회담을 언급하였다.

1) 실제로 피네라의 지지율은 7%에 이르렀다.

2)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y Secretaría General de la Presidencia, Santiago de Chile, 12/2020.

일부 완고한 비판자들은 프로수르가 대통령 간의 그룹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단언하였다. 프로수르가 과장된 것이라는 의미다. 업무 보고서는 네 차례의 정상회담, 각종 실무그룹 구성,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미주개발은행,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통합연구소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의 기술적인 공헌도 엿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보고서를 철저하고 긍정적으로 읽어도 우선순위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중요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의장 인제 당시 피네라와 두케가 서명한 선언문은 “환경 문제에 대한 조율과 COVID-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다. 게다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칠레가 프로수르 의장국으로 있을 당시 피네라 정부는 에스카수 협정(Acuerdo de Escazú)으로 더 잘 알려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대중 참여 및 사법 접근에 관한 지역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칠레 정부의 결정은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칠레 외교의 오랜 전통에 위배되며 칠레가 코스타리카와 함께 협정의 발기인 중 하나였기에 특히 심각하다. 기본적인 환경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에 있어서 칠레의 국제적 명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기업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칠레는 “모호한 의무가 있다”는 핑계로 역내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프로수르의 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아직 각국의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조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보건 분야에서 각국은 자체 수단으로 스스로 버텨야 했다. 국가 간 별다른 협력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특히 백신 접근성의 경우, 각국은 철저히 개별적으로 자국 국민을 위한 백신 확보에 애를 썼다. 예를 들어, 칠레는 모든 주요 백신 제조업체들

과 협약을 통해 백신 확보에 노력했는데, 2020년 12월 현재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에서 생산한 2만회 투약분이라는 매우 적은 양의 백신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효과와 투명성 논란 속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30만회 투약분을 처음으로 인도받았다. 의료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공동 조치는 기미조차 없었다. 국제금융 분야에서도 각국은 단독적으로 자국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을 뿐, 상품의 자유로운 통과, 국경의 개방, 팬데믹 정보의 교환 등 대통령들이 발표한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다.

대단한 즉흥, 그리고 큰 침묵

즉흥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대응에 관해서 말하자면, 쿠쿠타 작전(Operación Cúcuta)은 국제적 치욕의 역사에 남을 것이다. 리마 그룹³⁾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 국경도시 쿠쿠타에 모이지 않았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페루의 마르틴 비스카라도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작전은 콜롬비아와 칠레가 원하는 프로수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국제 시사회였다. 쿠쿠타 작전은 2019년 2월 22일에 열렸다. 사실 프로수르는 아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미 창설을 발표한 터였다. 쿠쿠타 작전의 구상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들어오면 베네수엘라 군대에 큰 영향을 주어 니콜라스 마두로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50여

3)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12개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가 선언문에 서명하였고, 추후에 가이아나,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그리고 볼리비아가 서명하였다. 또한 바베이도스, 미국, 그레나다 및 자메이카의 지원을 받았다. 리마그룹의 목적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대한 공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으로부터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받은 후안 과이도는 두케와 피네라, 그리고 파라과이의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의기양양하게 입성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대했던 베네수엘라 군대의 대규모 이반은 일어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군인은 60명을 넘지 않았다. 결국 마두로는 세력이 강해졌고, 반면 쿠쿠타 작전의 주역들은 철저한 해명을 해야 했다.

쿠쿠타 작전의 즉흥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볼리비아의 쿠데타에 대한 침묵이었다. 이것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비난한 반정부군이 주도한 몇 주 간의 시위 후인 2019년 11월 10일에 발생하였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군 총사령관 윌리엄스 칼리만이 모랄레스의 사임을 요구하며 마무리된 일련의 시위와 충돌에서 32명이 사망하고 715명이 부상당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비난한 미주기구 대표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야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선거에 대한 비난은 선거 당일 밤 모랄레스가 45.28%, 카를로스 메사가 38.16%를 득표했음이 전해지자 촉진되었다. 이 득표율은 야당 연합이 이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2차 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그 수치는 아직 개표율 84%를 반영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농촌이고 모랄레스에게 압도적으로 호의적인 나머지 지역의 개표가 남아있었다. 결국 공식 결과에 따르면 모랄레스가 10월 20일 일요일 대통령 선거에서 47%의 득표율로 2위인 메사를 10%가 조금 넘는 차이로 승리하였다.⁴⁾ 그러나 선거부정 의혹은 확산되었고, 여기에 2016년 2월 모랄레스의 대통령 연임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근소한 차로 부결되었던 터라 모랄레스의 대통령 입후보가 위법이라는 비난이 더해졌다. 결국 선거는 무효화되고 2019년 11월 상원의원 헤아니네 아네스가 임시

4) 볼리비아의 대통령 선거제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 40%를 넘고 2위 득표 후보와 득표율 차가 10% 포인트 초과일 경우 2차 투표 없이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지만, 2020년 10월 다시 치러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사회주의 운동당(MAS) 후보가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볼리비아 사태에 대한 침묵이 가장 심각하지만 유일한 침묵은 아니었다. 프로수르는 최근 콜롬비아와 칠레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칠레의 경우 4개의 국제 보고서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기록했다.⁵⁾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의 보고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살인 및 상해, 고문 및 학대, 성폭력 그리고 부당한 감금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특정 인권 침해, 특히 비살상 무기의 부당한 사용과 학대가 때와 장소,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측면에서 반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폭력적인 시위대와 평화롭게 시위를 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의무를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콜롬비아는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된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사회 지도자, 인권 운동가, 농민, 원주민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한 해에만 66건의 학살로 2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찬가지로 평화협정에 의해 무장해제한 244명의 전직 무장혁명군 대원들도 같은 운명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⁶⁾ 콜롬비아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들은 단호하다. 2020년 2월 보고서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5) 이 4개의 보고서는 각각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 미주인권위원회(IACHR)에 의해 작성되었다.

6) Foro Permanente de Política Exterior: 《Colombia, no a la indiferencia》, 18/12/2020.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높은 수준의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계속 관찰하였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인권 운동가와 원주민에 대한 공격, 살인 사건 증가, 그리고 폭력과 무력 충돌 상황에서 소녀 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였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폭력을 야기하고 또한 인권 보장의 결여를 불러일으키는 구조적 원인을 다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폭력과 치안 불안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치안과 관련된 상황에서 군대의 참여를 규제하는 의정서, 규정 및 공공정책들이 있지만, 아라우카, 안티오키아, 카케테, 카우카, 코르도바, 세사르, 초코, 메타, 나리뇨, 그리고 노르테 데 산탄데르와 같은 농촌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콘벤시온, 메데인, 산타 마르티 그리고 바예두파르와 같은 도심에도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곳에서 군대는 군사적 개입이 부적절한 마약 퇴치와 범죄 예방 및 추적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아라우카, 카타툼보, 노르테 델 카우카, 수르 데 코르도바의 여러 도시에서 주둔 군대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건수는 증가하였다.⁷⁾

인권의 완전한 존중이 가입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정의되었지만, 칠레와 콜롬비아의 심각한 위반을 간과하며 프로수르는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설립자인 피네라와 두케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에콰도르의 불안한 정치 상황에 대한 침묵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2021년 2월 7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레닌 모레노 정부는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의 참여를 막는 데에 깊이 관여해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법률전쟁에서 코레아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또한 안드레스 아라우스의 출마도

7) 《El 2019, un año muy violento paralos derechos humanos en Colombia》 en *Noticias ONU*, 26/2/2020.

금지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둘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프로수르 당국의 연대 침묵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침묵은 놀랄 일은 아니다. 이는 오래 지속되어온 일방적인 행동 방식의 일부다. 리마 그룹에 의해 가열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에 대한 싸움에서 미국과 협력했던 프로수르의 두 창설자들은 지우마 호세프의 파면과 루이스 이그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의 대선 출마 금지를 위해 브라질 의회와 사법부의 조잡한 제도화를 묵과하였다. 이는 결국 극우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길을 열었다.

이념적 보복으로서의 프로수르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자 전 우나수르(UNASUR, 남미국가연합) 사무총장인 에르네스토 삼페르는 프로수르를 일종의 《이념적 보복》으로 간주하였다.⁸⁾ 보수 세력의 논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남아메리카 정치를 지배한 진보 정권들의 몰락은 신자유주의적이고 미국과 협력하는 새로운 우파 정권들의 시대가 뒤따를 것이었다.⁹⁾ 우나수르는 남아메리카의 정체성과 시민권을 구축하고 통합된 지역 공간을 개발할 목적으로 2008년에 창립 협정에 서명하며 발족되었고, 이 협정은 각 국의 비준을 거쳐 2011년에 발효되었다. 남아메리카의 12개국으로 구성되었는데, 룰라 다 시우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에보 모랄레스, 우고 차베스,

8) 《Samper: el Prosur es un desquite ideológico》 en *Zoom*, 1/4/2019.

9) 진보 정권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C. Ominami (ed.): *Claroscuros de los gobiernos progresistas*, Catalonia, Santiago de Chile, 2017.

그리고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우나수르의 구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창설 후 6년 동안 우나수르는 특히 정치적 협의 분야에서 매우 합리적인 균형을 보여주는 일련의 조치를 실행하였다. 이것이 우나수르가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에 기여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소명에 따라 2012년 6월 1일 간이 재판에서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을 파면시킨 의회 쿠데타를 비난하고 파라과이의 우나수르 회원 자격을 중단시켰다. 파라과이의 회원 자격은 2013년 4월 대선에서 콜로라도당의 오라시오 카르테스가 승리한 후 복원되었다.

지역 통합의 측면에서 우나수르의 중요한 기여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이었다. IIRSA는 인프라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비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남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제도 개선 및 강화, 국가 자체의 조직화와 응집력 증대, 그리고 현대적 규제 틀을 통한 민간 부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¹⁰⁾ 물리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거의 통합되지 않은 남아메리카의 여전히 큰 미해결 과제를 다루는 것으로, IIRSA의 틀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재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남아메리카방위위원회(Consejo de Defensa Suramericano)의 창설 또한 우나수르의 공로인데, 이 방위위원회는 남아메리카를 평화 지역으로 통합하고 방위 문제에 있어서 지역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우나수르는 정치적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구가 되기 위해 주요 참여국들의 이데올로기적 입장들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각국이 갖고 있던 거부권에 더해진 진보적인 이념화는 결국 우나수르를 마비시켰다.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거부권

10)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Unasur: infraestructura para la integración regional》, 2012, disponible en <www.cepal.org/es/publicaciones/3121-unasur-infraestructura-la-integracion-regional>.

앞에 2017년 1월 우나수르를 삼페르의 뒤를 이을 신임 사무총장을 뽑지 못하고 수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보수 정부들은 우나수르를 종료하고 프로수르로 대체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였다. 콜롬비아의 전 대통령 알바로 Uribe는 우나수르에 자국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회원국의 거부권을 원칙화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6개국이 우나수르를 탈퇴하였다. 사실 이미 2018년 12월에 콜롬비아 외무장관은 “우나수르는 아직 매장되지 않은 시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¹¹⁾

최근의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미래는 열려 있다. 프로수르에서 더 이상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스카라도 페루의 대통령이 아니며, 레닌 모레노도 에콰도르의 대통령이 아니다. 볼리비아는 루이스 아르세 카타코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보수 세력들은 볼리비아와 협력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 3월에는 칠레의 피네라도 대통령직을 떠나게 된다. 따라서 프로수르는 역사에 남을 만한 지역 통합이 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지역의 통합 프로세스가 기록해온 오랜 좌절의 역사에서 프로수르는 단지 또 하나의 에피소드에 그칠 것이다.

전염병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으며 보건의료, 경제 및 사회적 위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대륙에서 통합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남아메리카는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었다. 현 상황은 경제적 침체, 정치적 불안, 사회적 불만 그리고 국제적 소외를 예견할 뿐이다. 기술관료적이고 공상적인 실현 불가능의 유토피아가 되지 않도록, 통합을 재고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며 정치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급한 비상사태에 전념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념적 변화를 견디는 통합이어야 한다.

11) Declaraciones a la emisora La Voz del Cinaruco, 13/9/2018.

남아메리카의 통합은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남아메리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진보 정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 및 무역 통합 측면에서는 실패하였다. 그들은 가장 빈곤한 계층에 대한 광범위한 재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붐을 이용하였다. 어쨌든 그들은 생산구조의 다변화와 고도화에 있어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더욱이 그들의 정권 동안에 탈산업화도 일어났다.¹²⁾

남아메리카의 통합은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통합이라는 더 큰 과정의 일부여야 한다. 2010년 2월에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는 32개국이 참여한 야심찬 프로젝트지만 정치적 지원 부족으로 쇠퇴해 있다. 재기할 새로운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남아메리카는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프로수르만큼 이념적인 기구는 아닐 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우나수르를 재편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단기적인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어쨌든 보수 정권들이 주연이 된 최근의 정치적 표류 이후에 오는 새로운 세대의 통치자들은 거대한 과업에 직면해 있다.

한편,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아이디어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먼저, 글로벌 패권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엄격한 비동맹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¹³⁾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커다란 정치적, 이념적 차이들을 극복하고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국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초강대국에 종속되는 것은 결코 방법이 될 수 없다. 또 하나는, 경제의 재건과 재활성화

12) Alicia Bárcena: 《Integración y desintegración en América del Sur》 en C. Ominami (ed.): ob, cit.

13) Carlos Fortín, Jorge Heine y C. Ominami: 《El no alineamiento activo: una camino para América Latina》 en *Nueva Sociedad* edición digital, 9/2020, <www.nuso.org>

과정이 야기하는 막대한 요구사항들 사이에서, 자금 조달과 새로운 국제금융 구조에 관하여 역내 국가들이 공통된 입장을 구축하여 현재의 유동재산과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재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임태균 옮김